

남원 농촌관광거점마을 준공

숙박동·세미나실·식당 등 30억원 투입 주변 마을 야외 판소리체험 공연장·북카페 조성

남원시 동편제 마을이 농촌관광거점마을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곳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추진해온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마무리 된 지역으로, 4일 운봉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농촌체험관광 기반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유입 촉진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차별화된 남

원의 농촌관광 거점역할을 선도하는 동편제 마을은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숙박동, 세미나실, 식당 등의 시설에 30억원이 투입되었다. 집촌 동편제마을은 조선 태조가 왜구를 전멸시킨 황산대첩 승전지와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로 수많은 명창을 배출한 국악의 성지이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산양치즈체험, 소시지가공체험, 판소리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

며, 지리산 둘레길 중심지로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단체 숙박동 12실을 갖추고 50명의 동시 숙박과 100명을 수용하는 세미나실과 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식당동을 갖추고, 주변 비전마을과 화산마을에는 야외 판소리체험 공연장과 북카페 시설을 조성해 거점마을로써 경쟁력을 갖추었다. 남원시 배세근 농촌활력과장은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위해 수려한 지리산 운봉고원의 자연자원을 접목한 농촌체험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등 남원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사랑상품권 10억원 추가 발행

군, 총 20억원으로 추석맞이 수요 대비... 지역경제 효과역할 기대

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 판매량에 힘입어 당초 발행액보다 많은 10억원을 추가해 총 20억원을 발행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창사랑상품권 1차 발행액 10억원에 이어 추가로 10억원을 발행하고 최근 군내 판매점에 배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권 추가 발행은 순창사랑상품권이 8월 1일자로 발행한지 1개월여 만에 1차 발행액 10억원의 52%인 5억 2천여만원이 판매되는 등 큰 호응을 얻어 발행한 것. 군은 상품권 활용을 타 지자체보다 높은 7%로 설정해 판매에 들어가면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 급격한 혜택이 높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제수용품 구매 등 유통가 대목인 추석명절을 맞아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까지 확대한 점도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판매량 증가는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가맹점 확보와



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 판매량에 힘입어 당초 발행액보다 많은 10억원을 추가해 총 20억원을 발행했다.

당일 환전시스템을 통한 이용자와 가맹점에 이용 편의를 높인 결과로 보여진다. 여기에 군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 특별할인가간이 끝나 오는 20일부터 '골목상권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군내 소재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상품권으로 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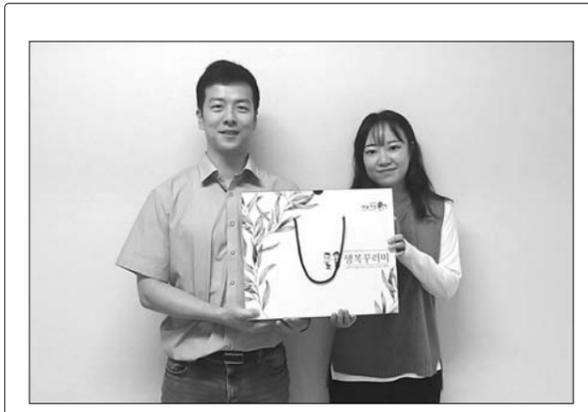
별 각 5만원이상, 합계 15만원 이상 50만원한도에서 사용후 현금영수증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경우 사용금액의 10%를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업이 진행되면 특별할인가간 시행한 가맹점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임실군통합방위협의회(의장 심민)는 4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019년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민 군수를 비롯하여 정나영 임실교육지원청장, 안형모 한국수자원공사 삼진강지사장, 김대근 임실 119안전센터장, 773부대 2대

대장, 통합방위 위원, 유관기관·단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는 2019년 통합방위 추진 계획, 3분기 통합방위 훈련성과 및 2019년도 4/4분기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현안 과제 토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마을기업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 세트를 출시했다.

남원 특산품 구성 행복꾸러미 출시

잡화꿀·한과 등 6개 마을기업서 직접 재배·생산

남원시 마을기업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 세트를 출시했다. 행복꾸러미 세트 구성은 6개 마을기업에서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잡화꿀 ▲한과 ▲들기름 ▲부각 ▲가마솥 누룽지 ▲구절초 꽃차 등으로 4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으며, 가격은 3만5천원이며, 명절에 주위 친지나 이웃들에게 선물 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돼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이번 행복꾸러미 세트는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추석을 통해 종합적인 홍보는 물론 마을기업 제

품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설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동참한 마을기업은 누운골 밀밭, 달오름마을, 흥부마을 남원춘향골 공설식품, 지리산 황치마을, 지리산구절초 영농조합 법인으로, 이들 조합에서 생산된 상품판매를 통해 영세한 마을기업들의 성장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구입은 남원시 마을기업협의회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문의는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39)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추석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15일까지 대대적 환경정비

남원시가 추석을 귀성객과 시민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5일까지 대대적 환경정비, 쓰레기 신속수거, 쓰레기 발생억제 시책 등을 추진 한다. 추석 전에는 주요 진입도로변과 마을 안길 청소, 무단 방치 쓰레기 수거, 기타 도시 미관 저해 요인에 대한 대대적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다중이용 시설인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점검과 보수 등을 통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당일(13일)을 제외한 연휴기간에도 쓰레기 정상수거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황실과 청소기동반을 운영해 각종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휴기간동안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을 강화하고 다각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물포장이나 명절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내 마트나 업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점검을 실시하고, 명절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 각종 쓰레기 발생 억제 캠페인도 함께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왕길성 환경과장은 "풍성한 명절인 추석 어느 때보다 쓰레기 발생억제와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추석명절 대도시 마케팅

임실군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대도시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자매결연 도시인 부산진구와 서울 강서구 등 6개소에서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명절을 준비하는 도시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번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는 앞선 2일과 3일 부산진구를 시작으로 서울 은평구(3일~4일)에 이어 강서구(4일~5일), 양천구·마포구(5일~6일), 서울광장(6일~9일) 등에서 열린다.

지난해 임실군은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통하여 3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미 군은 전북도청 앞에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2019년 제9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해 도시민들의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2020년도 예산편성 설명회

순창군은 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설명회는 각 부서 회계 및 사업 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변경된 기준, 시책 등을 설명하고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군은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군정 3대 비전인 예산 5천억, 관광객 5백만, 인구 4만 실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인 스마트 농업과 미생물 산업, 문화·관광 사업, 지역특화 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리고, 이날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정산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보조사업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신옥수 기획예산실장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순창군 공무원들에게 중점사항과 편성방향을 안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취합해 2020년도 본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한 후 11월 21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